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57

빌레몬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빌레몬서

Philemon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1:16)

*οὐκέτι ὡς δοῦλον ἀλλ' ὑπὲρ δοῦλον, ἀδελφὸν ἀγαπητόν,
μάλιστα ἐμοί, πόσω δὲ μᾶλλον σοὶ καὶ ἐν σαρκί καὶ ἐν κυρίῳ.*

빌레몬서 차례

빌레몬서 서론..... <13제> ... 677
제 1 장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하다 <15제> ... 682

빌레몬서 특별 자료 차례

빌레몬서 서론 <화보 자료> 사랑과 관용의 정신 681

빌레몬서 서론

1. ㉠ 본서신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 (2) 그가 본서신의 저자라는 것은 서신의 내용을 통해 잘 증명된다. 그는 서신의 서두에서부터 자신이 발신자임을 밝히고 있으며(1:1), 후반부에 가서는 자신이 친필로 본서신을 기록했음을 고백하고 있다(1:19).
- (3) 또한 초대 교회의 교부인 이그나티우스(Ignatius), 터툴리안(Tertullian), 오리겐(Origen) 등도 본서신을 바울이 쓴 것으로 인정하며 무라토리 단편(Muratorian fragment)도 본서신이 바울의 저작임을 인정하고 있다.
- (4) 그러나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위와 같은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본서신의 바울 저작권을 부인한다. 그들은 본서신이 A. D. 2세기경에 교회의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익명(匿名)의 사람에게 의하여 쓰여졌다고 말한다(F. C. Baur, W. C. Van Manen).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 (5) 사도 바울은 본서신의 내용의 문맥 속에서도 자신이 저자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 개인의 신앙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6) 즉 그는 본서신에서 자신이 갇힌 자 중에 있다는 것(1:1, 9, 10, 13), 기도의 부탁(1:22),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1:23, 24) 등 그만이 전개할 수 있는 필체로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본서의 저자임을 암시하였다.

2. ㉠ 본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의 수신자는 내용상으로 볼 때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뿐이다(1:4-22). 즉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쓴 서신이 본서신이다.
- (2) 그러나 본서신의 서두에는 빌레몬 한 사람이 수신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빌레몬과 및 자매 압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1:2)라고 하여 여러 사람이 서신을 받는 자로 되어 있다.
- (3) 따라서 본서신의 수신자는 내용상으로는 한 사람이나 형태상으로는 여러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바울은 많은 사람 앞으로 본서신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그와 빌레몬 사이의 서신 내용이 주는 교훈을 배우게 한 것이다.
- (4) 본서신의 끝인사도 복수 '너희'로 되어 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휘몬>으로서 2인칭 복수 소유격이다.
- (5) 이처럼 교회는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 한 개인의 문제는 바로 교회 전체의 문제이며 교회 전체의 문제는 각 성도들이 나누어 짊어져야 할 문제이다(참조, 고전 12:12-27).

3. ㉠ 빌레몬은 어떠한 인물인가?

- ㉠ (1) 빌레몬은 본서신에 나타나는 오네시모의 주인으로서(1:16), 오네시모를 위해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대상(對象)이다. 당시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나 후에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거듭나게 되었다(1:10).
- (2) 빌레몬은 아마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행 19:9, 10)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골로새 지방으로 이사를 해 살았던 것 같

다. 그리고 빌레몬과 함께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압비아가 그의 아내일지도 모르며, 아킵보는 그의 아들이거나 가까운 친족으로 추정된다.

- (3) 그는 돈독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바울에 의해 ‘동역자’라고 불리웠다(1:1). 이것은 그가 골로새 교회를 양육하는 사역자였음을 암시한다.
- (4) 또한 그는 바울에 의해 많은 사랑을 받는 자였으며(1:1)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한 자였다(1:4, 7).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하여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1:7).
- (5)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이 ‘네 집에 있는 교회’(1:2)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가족과 종들을 훌륭하게 신앙적으로 키워 한 집안에서 교회의 모임이 형성되도록 했거나, 아니면 그의 집을 교회의 집회 장소로 제공하였던 자였다.
- (6) 이와 같은 빌레몬은 현재에 사는 성도들의 참다운 귀감이 된다. 그의 사생활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본받아 그대로 실천해야 할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빌레몬의 인물됨을 우리들의 거울로 삼아 주의 일에 더욱 열심히 하며 남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모든 가정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겠다.

4. ㉠ 본서신을 기록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 ㉠ (1)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A. D. 53-58)을 마친 후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구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하여(롬 15:25, 26)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약 2년 이상의 호송 기간을 거쳐 로마의 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행 19:21; 21:15, 26-35; 25:11).
- (2) 이때에 그는 로마 감옥에서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도망간 것으로 추정되는 종 오네시모를 만났다. 그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 거듭나게 했다(1:10).
- (3) 따라서 오네시모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옛날의 죄악된 행동과는 달리 바울을 수종 들며 복음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군이 되었다(1:11, 13). 그는 이제 인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게 된 것이었다(1:12).
- (4)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어 그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돕게 하려 하지 않았다.
- (5)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고 빌레몬의 용서가 없다면 당시 도망친 노예에게 부가되는 형벌인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자신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있도록 방치한다면 자신 뿐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누를 끼치기 때문이다.
- (6)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허가를 얻은 후 오네시모로 하여금 자신을 도와 복음 사역을 하도록(1:14) 조치를 취하려 하였다.
- (7) 그래서 그는 본서를 자신과 빌레몬의 개인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썼던 것이다.

5. ㉡ 본서신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신은 사도 바울이 다른 옥중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A. D. 61-63) 기록되었다.
- (2)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행 19:21; 21:17) 잡힌 시기가 A. D. 58년이였다.
- (3) 그는 잡힌 후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약 2년을 보냈다(행 24:27). 이때에 그는 자신의 무죄를 증거하기 위하여 가이사의 재판을 호소하여 다시 로마에까지 호송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때가 A. D. 61년경이였다.
- (4) 그리고 그가 본서신을 비롯한 옥중 서신들을 쓴 것은 A. D. 62년경으로 추정된다.

6. ㉢ 본서신이 기록된 장소는 어디인가?

- ㉢ (1) 사도 바울은 본서신을 감옥에서 갇힌 중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밝히고 있다(1: 1, 9, 10, 23).

- (2) 그러나 본서신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에베소에서나 가이사라 감옥에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 (3) 일부 사람들은 본서신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Deissman, Appel, Lake, Duncan, McNeile).
 - ① 이들은 고후 11:23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의 투옥 생활은 빌립보 감옥에서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중의 한 곳이 에베소 감옥이라고 말한다.
 - ② 또한 이들은 본서신에서 바울이 빌레몬을 방문하고자 했던 사실을 들어 빌레몬을 방문하기에는 에베소가 로마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본서신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 ③ 그리고 이들은 바울의 친구들이 로마보다는 소아시아의 바울을 방문키 쉬웠을 것이기 때문에 본서신이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 ④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적인 합당한 근거가 없다.
- (4)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약 2년 이상을 갇혀 있었을 때에 서신들을 썼다는 주장도 성경적인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 (5) 오히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본서신을 비롯한 옥중 서신들을 기록했다는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Weiss, Moffatt, Lightfoot).
 - ①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후(행 21:17-30) 로마에까지 호송되어 그곳에서 2년간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 준다(행 25:11;28:14-16, 23, 30, 31).
 - ②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가이사라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는 없다(행 28:23, 30, 31).
 - ③ 그리고 본서신과 빌립보서는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증거를 명백히 밝혀 주고 있다(빌 1:13;4:22). 따라서 본서신은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음이 틀림없다.
 - ④ 또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갇혀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7. **㉠** 본서신의 특징을 설명하라.

- ㉠** (1)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들은 공적(公的)인 것에 반해 본서신은 극히 사적(私的)이다.
- (2) 따라서 본서신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격과 성품, 태도 등이 잘 나타나 있다(1:14, 18, 19). 특히 그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과 겸손을 지니고 있었다(1:9).
- (3) 그리하여 바울은 본서신에서 예수의 가르침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도의 권위를 동원하여 강요하기 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진지한 설득을 하였다(1:16-21).

8. **㉠** 본서신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서신은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계급과 지위를 초월하여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마련해 주고 있다.
- (2)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과거에 그의 물건을 훔쳤을지도 모르며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를 형제로 대하라고 말한다. 이는 회개한 자에 대하여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와 사랑을 나타낼 것을 암시한 말이다(참조, 눅6:37;고후2:10).
- (3) 용서와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용서와 사랑이 없는 교제는 위선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4) 또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마 6:12, 14, 15).

따라서 우리는 배워야 할 많은 것 중에서도 먼저 형제 용서하기를 배워야 한다.

9. **㉠ 초대 교회 당시의 가정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 ㉠** (1) 초대 교회 당시에는 가정에서 집회를 갖는 일이 많이 있었다(행 2:46;5:42;12:12).
 (2) 이것은 그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늘고 그들이 모두 한꺼번에 한 장소에, 한 시각에 모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며, 또한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서로서로에 대한 교제와 보살피는 일에 더 용이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3) 가정 교회는 바울의 서신에도 많이 나타난다(롬 16:5; 고전 16:19; 골 4:15). 이것은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 교회가 활동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가리킨다.
 (4) 학자들간에는 이 가정 교회에 관하여 의견이 많으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가정 교회는 당시에 한 가족들 또는 친지와 종들까지 포함하여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의 모임을 형성한 것을 뜻한다(Leeuwen, Calvin).
 (5) 그러나 한 편으로는 그 집을 인근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또는 교제 장소로 제공하여 가정 교회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
 (6) 아물튼 초대 교회 당시에 많은 가정 교회가 있었으나 이 교회가 하나의 지역적이고 독립적인 형태의 교회를 이루었다기 보다는 몇 개의 가정 교회가 모여 하나의 독립된 도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10. **㉠ 본서신과 골로새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 (1) 본서신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함께 기록했던 골로새서와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형태상 매우 유사하다.
 (2) 본서신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즉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같은 목적지(골로새)로 보내졌다(1:1, 9, 22; 골 4:3, 10, 18).
 (3) 이 두 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는 모두 같은 사람이다(1:23, 24; 골 4:10, 12, 14).
 (4) 이 두 서신은 모두 한 사람 두기고에 의해 전달되었던 것 같다(엡 6:21; 골 4:7). 그러나 이때에 두기고는 혼자 가지 않고 오네시모를 동행시켜 갔을 것이다(1:12; 골 4:9).
 (5) 본서신과 골로새서는 모두 아키프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1:2; 골 4:17).

11. **㉠ 본서신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본서신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2) 첫째 부분은 사도 바울의 소개와 인사말이다. 그는 자신과 그와 함께 있는 자의 신분을 밝히고 수신자들에 대한 이름을 열거한 후 그들에게 인사말을 하였다(1:1-3).
 (3) 둘째 부분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이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하여 그가 행한 일과 사랑 그리고 믿음을 인해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1:4-7).
 (4) 셋째 부분은 오네시모를 위한 사도 바울의 간구이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따뜻하게 받아 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온유하게 간청하고 있다(1:8-21).
 (5) 넷째 부분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들이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치면서 그의 개인적인 기도를 부탁하고 그의 동역자들이 문안한다는 것과 심령의 축복을 비는 말을 함으로써 끝을 맺는다(1:22-25).

12. **㉠ 본서신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바울의 소개와 인사말 / 1:1-3
 ① 발신자들과 수신자들의 소개 / 1:1, 2

- ②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빌다 / 1:3
- (2)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칭찬 / 1:4-7
 - ① 하나님께 대한 감사 / 1:4
 - ② 빌레몬을 향한 칭찬 / 1:5, 6
 - ③ 바울의 기쁨 / 1:7
- (3)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 / 1:8-21
 - ① 바울의 간구 / 1:9-10
 - ② 오네시모의 변화 / 1:11, 12
 - ③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 / 1:13, 14
 - ④ 오네시모에 대한 영접을 권면하다 / 1:15-18
 - ⑤ 바울의 다시 한번의 간곡한 부탁 / 1:19-21
- (4) 개인적인 문안과 축복 / 1:22-24
 - ① 바울의 기도의 부탁 / 1:22
 - ② 바울의 동역자들의 문안 / 1: 23, 24
 - ③ 바울의 축복 / 1:25

13. **㉠** 본서신의 요절을 밝히라.

- ㉠**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1:16).

화보자료

사랑과 관용의 정신. 아래 사진은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해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베두윈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지니는 두드러진 성품 중의 하나는 사랑과 관용이다. 자신의 지난 허물을 깊이 회개하는 자를 향해 성도가 보일 수 있는 태도는 그를 용납하는 것이다(1:17).

제 1 장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하다

단락구분 1-3 바울의 소개와 인사말 / 4-7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칭찬하다 / 8-10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구 / 11-14 오네시모의 변화된 위치 / 15-18 오네시모에 대한 영접을 권면하다 / 19-21 바울이 다시 한번 오네시모를 위해 감청하다 / 22-25 바울의 사적인 문안과 축복

1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2 및 자매 압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도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4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5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6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7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함을 얻었노라

8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9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11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12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심복이라

13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

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15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16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17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18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계하라

19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값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20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1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으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22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에바브라와

24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1. ㉠ 본장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 (1) 바울은 본장에서 종이였다가 주인의 집을 뛰쳐 나온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를 다시 받아들이도록 간구하고 있다.
- (2) 즉 바울은 빌레몬에게 전에는 하찮은 계층의 인물이었으며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서 영접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그는 오네시모가 자신을 돕는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

도록 자유인으로 허락할 것을 요청하였다.

- (3)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셨던 예수의 마음을 닮아 지극히 낮은 자세에서 간청한 것이다(참조, 빌 2:5-8).
- (4) 바울의 겸손한 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인간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설명해 준다.
- (5)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형제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주종(主從) 관계의 첩예보다는 구원받는 자로서 서로에 대한 교제를 어떻게 새로운 각도에서 행할 것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6) 따라서 우리들은 본장을 바라볼 때 단순히 주종 관계의 계급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주 안에서 새로운 인간 관계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기존 사회의 제도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이며 한 개인 개인을 어떠한 관계로 만나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다.

2. **㉠** 바울의 인사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3절)

- ㉠** (1) 바울은 서신의 서두에 먼저 자신의 처지와 함께 있는 발신자의 이름을 밝히고, 다음에 수신자들에 대한 이름을 세세히 명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수신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았다.
- (2) 이와 같이 서신의 첫머리에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 문안 인사를 쓰는 것은 당시 헬라 사회에 있어서 편지를 쓰는 전통적인 관습이었다(행 23:26). 그러나 우리들은 본장 초두의 인사말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서신을 쓴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3) 즉 그는 먼저 서신의 서두에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그의 예의를 나타내 보였다.
- (4) 계속해서 바울은 수신자들에 대한 이름을 세세하게 밝힘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표명했으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덧붙였다.
- (5)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빚으로써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나타냈다. 원래 헬라인들이 쓰는 전통적인 편지 양식에는 인사어로서 <카이로>라는 말을 쓰는데 행 23:26에는 '문안드리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
- (6)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닮아 보다 나은 믿음을 갖도록 한다(고전 4:16; 11:1). 우리들은 자신이 대하는 상대방에게 예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세상의 전통과 구습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3. **㉠** 바울이 본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말한 것은 어떤 의도에서인가? (1절)

- ㉠** (1)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들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말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나(롬 1:1; 고전 1:1; 고후 1:1; 갈 1:1; 엡 1:1) 본서에서는 자신의 갇힌 것을 언급하고 있다.
- (2) 이것은 본서신이 교회의 공동체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일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개인을 향한 사적인 일에는 사도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보다 개인의 처지를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 (3) 사도 바울은 본서신 외에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혔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였다(엡 6:20; 빌 1:7; 골 4:3).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갇힘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드러낸 말이다.
- (4)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신의 갇힌 처지를 말한 것은 감옥에서 거둬난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그의 요청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 (5)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자기 자신의 체험을 간증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방편이어야 한다.

4. **㉠** ‘군사된 아킵보’라는 말이 주는 뜻은 무엇인가? (2절)

- ㉠** (1) 골 4:17에 의하면 아킵보는 바울로부터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독촉을 받았다. 이것은 아킵보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 (2) 한편 아킵보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군사로 불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마 4:1-11).
- (3) 그러므로 아킵보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하여야 했는데, 이 전쟁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다(고후 10:3-5). 이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사단의 제계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다(엡 6:11, 12).
- (4) 따라서 아킵보는 깨어서 기도하고(벧전 4:7), 영적으로 무장하여(엡 6:13-16) 믿음으로 악한 세력들을 대적해야만 했다(약 4:7; 벧전 5:8, 9).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그에게 권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 같다(골 4:17).
- (5) 영적인 면에서 보면 아킵보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딤후 6:12)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엡 6:10, 11).

5. **㉠**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말하여 보라(4, 5절).

- ㉠** (1)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를 위한 간구를 잊지 않았다.
- (2) 바울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그의 서신 속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다(엡 1:15, 16; 빌 1:3, 4; 골 1:3, 4, 9).
- (3) 이처럼 남을 위한 도고를 계속해 온 것을 볼 때 중보 기도는 바울이 지닌 기도의 습성이었던 것 같다. 그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의 순수한 마음을 나타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성을 드러내었다.
- (4)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영적 상태를 주시하지만 말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신 또한 신앙 인격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6. **㉠**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6절)

- ㉠** (1) 바울은 빌레몬이 그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바울 일행 가운데 있는 선을 알도록 기도하였다.
- (2) 여기에서 ‘믿음의 교제’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이다(Leeuwen).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빌레몬이 믿음 안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다른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다(Lightfoot).
- (3)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미는 모두 믿음의 교제란 말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이와 같은 교제, 즉 영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성도들과 교제를 함으로써 바울 일행가

운데 있는 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발견되어야 할 모든 선을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믿음의 교제는 빌레몬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선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7. **㉠ 사도 바울은 빌레몬으로 인하여 성도들과 자신이 각각 어떠한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였는가? (7절)**

- ㉠** (1) 사도 바울은 빌레몬으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고, 또한 자신도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하였다.
- (2) 즉 성도들은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교회의 모범으로 활동한 사실을 통해 안정된 겉과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참조, 마 11:28, 29), 바울 역시도 그로 인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느꼈고 자신이 처한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참조, 사 61:10).
- (3) 이와 같이 한 개인의 신실한 신앙 생활과 인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교회마다 이러한 신앙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오르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4) 그러므로 빛 바랜 복음과 영리주의 교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은 이웃의 모자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온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나아가서 세상에서조차도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8. **㉠ 8-14절에 나타난 바울의 간구 내용 중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 ㉠** (1) 바울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을 하나하나 자세히 빌레몬에게 강청하였다. 이 속에는 그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많은 면들이 있다.
- (2) 첫째는 사랑이다. 바울은 그가 고백한 대로(9절)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 사도직을 가진 자로서의 명령 대신에 겸손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간구하는 태도를 취하였다(8, 9절).
- (3) 둘째는 겸손이다. 바울은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에서 간구하였다(9절). 이 겸손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덕목이다(참조, 요 13:1-17).
- (4) 셋째는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로 나온 오네시모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다(10절). 위로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위로한 것이다.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로써만 가능하다(참조, 고후 1:3-7).
- (5) 넷째는 담대함이다. 바울은 주인의 물건을 훔친 자인 오네시모가 이제 거듭나자 이 사실을 주인인 빌레몬에게 담대히 말하고 그를 받을 것을 강청하였다(11, 18절). 죄를 용인하여 은폐시키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형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죄를 용납하기 보다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 (6) 다섯째는 깊은 애정이다. 사도 바울은 한때 주인의 물건을 훔친 자로 추정되는 오네시모가 변화되자 그를 심복으로 삼았다. 이것은 죄는 철저히 분쇄하되 죄인은 용납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마 5:43; 요 8:7)과 일치한다.
- (7) 여섯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자기 곁에 두어 복음 사역을 돕게 할 수도 있었으나 먼저 빌레몬의 허락을 맡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제아무리 정의롭고 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순서와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이다(참조, 고전 14:40).

(8)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이다(고후 3:12-18). 따라서 우리들은 믿음과 신앙의 연륜(年輪)이 더욱더 쌓여 갈수록 주를 닮아 아름다운 인격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되도록 하자.

9. **㉠** 본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사상에 대해서 설명하라(15절).

- ㉠** (1)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 곁을 떠나 도망친 것은 그가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아와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 (2) 이것은 오네시모가 과거의 빌레몬의 종의 상태에서 이제는 천국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형제가 되었음을 뜻한다.
- (3) 오네시모가 종의 천한 신분으로 주인에게서 도망쳤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빌레몬의 형제가 될 줄은 오네시모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예언되어진 것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마 24:36).
- (4) 그러나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예정(엡 1:5, 11)에 의하여 구원받았다. 이것은 과거 그가 천한 종이었거나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간 무익한 자였다는 조건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롬 12:2)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기 전에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생활하지 말자. 역사의 고삐는 하나님께서 항상 쥐고 계신다.

10. **㉠** 우리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하려는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8절)

- ㉠** (1)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한 일을 하였거나(wrong), 빚진 것이 있거든(owe) 자기에게 회계하라고 한다.
- (2) 여기에서 ‘회계하다’란 헬라어로 <엘로게오>로서 ‘계산하다’라는 상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3) 이로 볼 때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 값 나가는 물건을 훔쳤거나 아니면 빚진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 (4)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헬라어 <에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을 부드럽게 취급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자에게 무조건 질타하기 보다는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그 개인의 잘못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한다.
- (5)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기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11. **㉠**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9절)

- ㉠** (1)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빌레몬이 자기에게 빚진 것을 회상시키며 말하고 있다.
- (2) 여기에서 빌레몬이 빚을 졌다는 것은 물질적인 빚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시에 빌레몬은 종을 두었을 정도로 부유한 자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빚을 졌다는 것은 물질적인 빚보다는 영적인 빚을 의미한다.
- (3)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롬 1:14). 이것은 그가 예수로부터 복음을 듣고(갈 1:12)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며 그 빚을 청산할 수는 없지만 빚진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분깃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행 13:2-4).
- (4) 마찬가지로 빌레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빚진 것이 있는 자로 불리웠던 것 같다.

- (5)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복음의 빛진 자들이다. 작게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이며, 크게는 그리스도에게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 마땅히 겸손해야 하며, 그 빛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 받은 바 큰 사랑을 나눌 수는 있어야 한다.

12. ㉠ 바울이 빌레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22절)

- ㉠ (1)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간구한 다음 자신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라고 부탁하였다.
- (2) 여기에서 처소란 헬라어로는 <크세니아>로서 손님이 묵는 방을 가리킨다. 그러나 바울은 문자적인 의미로서 처소를 예비하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다.
- (3) 바울이 본절에서 말하는 처소란 상징적인 의미로서 바울이 빌레몬을 방문할 때에 편안히 거할 수 있는 상태, 즉 빌레몬이 바울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드리는 것을 암시한다.
- (4)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야 할 때가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색하지 않고 원만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 (5)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항상 처소가 예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에게든지 평안함과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13. ㉠ 바울과 함께 갇힌 에바브라는 어떠한 인물인가? (23절)

- ㉠ (1)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의 문안 인사를 말하는 과정에서 에바브라를 처음 언급하였다. 그는 에바브라를 갇힌 자로 묘사하였는데, 이것은 갇혀 있으면서도 갇혀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동역자(fellow worker)로 표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 (2) 바울이 이와 같이 묘사한 것은 본서신이 골로새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빌레몬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3) 에바브라는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서(골 1:7) 바울에게 찾아와 골로새 교회의 사랑과 당시의 상황을 전한 자이다(8절).
- (4)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담당하던 사역자이었다(골 4:13). 에바브라가 이와 같이 활동한 것은 초대 교회 당시 복음의 일군들의 폭넓은 사역과 열심을 잘 설명해 준다.
- (5) 진정한 하나님의 일군은 자기의 목숨이나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하며(빌 2:26, 30; 딤후 2:4) 오히려 이런 것들은 모두 주께 맡겨야 한다(마 6:31-34).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에바브라는 현대에 사는 하나님의 일군들에게 큰 본이 된다.

14. ㉠ 사도 바울은 말을 맺으면서 자신과 더불어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였다. 그들은 누구인가? (24절)

- ㉠ (1)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지칭하여 함께 문안하고 있다. 여기 제시된 이름들은 골 4:10, 14에 언급된 바 있다.
- (2) 여기서 마가는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으며(행 11:25; 12:25) 바울과 약간의 불편한 관계에 이르기기도 했지만(행 15:36-40) 끝내 바울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은 자였다(참조, 딤후 4:11).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최후에 이르는 여행 길에까지 동참할 정도로 바울과 신실한 동역자였다(행 20:4; 27:2).
- (3) 또한 데마는 이 당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었으나 끝내 그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복음 사역을 포기한 자였다(참조, 딤후 4:11). 마지막으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했을 뿐 아니라 의사로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행 16:10; 21:1; 갈 4:13, 14; 딤후 4:10) 겸손하고 신실한 주의 종이였다.

저자 소개

강병도 목사는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신학교(제 13회, 1959년)를 졸업한 후 30여 년 간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개혁주의적 목회의 일환으로 평신도 성경 공부에 관심을 쏟던 중 그간의 성경 연구 자료를 정리한 「성경 문답식 강해」(1973년)를 펴내어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초기에 4권으로 시작되었던 이 책이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3년 사이에 6권으로 불어났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바쁜 목회 생활 중에 기존 저술의 보완 작업을 쉬지 않던 그는 이제 「QA시스템 성경 연구 시리즈」 전 15권의 저술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현재 자신이 개척한 부산 동래 성일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회사 발행인으로서 저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성경 문답식 강해 증보판-

QA시스템 성경연구시리즈 14 고린도전서-빌레몬서

1999년 9월 10일 인쇄

1999년 9월 20일 발행

저 자/강 병 도
발행인/강 병 도
대 표/강 도 환
발행처/기 독 지 혜 사

등록/제 16-267호(89.7.21)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28

전화/568-8122, 1361~2

FAX/553-4830

정가 19,000원